

한국화 · 서양화부터 도예까지 곳곳하게

#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작가들의 세계속으로

▶ 도립미술관 '전북의 원로작가 전'

박남재 · 홍순무 · 한봉림 등 현재까지의 대표작 선배 전시는 31일부터 5월까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한국화 · 서양화 · 서예 · 도예분야에서 곳곳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작가로서 면모를 키워온 원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전북의 원로작가 전'에선 서양화가 박남재(1929), 서양화가 홍순무(1935), 한국화가 방의걸(1938), 한국화가 송계일(1940), 서예가 김중범(1939), 도예가 한봉림(1947)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작을 전시한다.

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고자 작업실을 탐방해서 작품제작 장면과 인물사진을 촬영했을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인터뷰를 실어 작가 각각의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원로미술가들에 대한 주요 비평 · 회고 등 자료들을 도록에 수록했다.

박남재 화백 작품의 중심 테제는 건강한 자연의 원초적인 회복이다. 화폭에 담긴 자연은 감성적으로 순화되어 있으며 서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한다. 김인환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자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동시에 자연의 외곽을 걸러내고 그 진수만을 포착해 나가려는 진지한 작업자세로 일관해왔으며 묘사적인 자연주의 양식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극복,



한봉림 '영원한 운동'

탈피하려는 의지가 작용하면서 근작에 있어서는 자기경신의 변모가 한결 눈에 띈다고 평한다.

홍순무 작가는 격동하는 현대미술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고향 산천과 이웃 사람들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화폭에 담는다. 특히 농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전북의 민중적 삶의 흥겨움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유근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아서 알고 살아서 느끼는 삶의 진실만을 그린다'는



홍순무 '화실의 여인'

평을 남기기도 했다.

물과 먹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목정 방의걸 작가의 작품들은 명백하게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방 화백은 '그림은 평생 그 안에서 울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놀이'라며 '거장한 화화이론이나 철학사상은 없다. 다만 그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그린다'고 담담한 미소와 함께 화업의 길을 말한다.

서예가 김중범씨는 급히 서둘지 않고 묵묵한 걸음으로 원숙한 서경을 구축했다. 자유로운 운필로 유려함이 돋보이는 독특한 작품에는 원로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벽경 송계일 화백은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에 전착해서 채색과 수묵의 조화, 먹의



송계일 '조형의 산'

농담과 진재의 조화 등 다채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창출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자연을 체화함으로써 무한히 가리웠던 자연의 섭리와 순환 고리를 의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봉림 선생은 '현대도예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닌다. 흙과 불을 통해 추상적인 관념으로 확장하면서 영원한 운동과 생명력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굽이치는 곡선과 빨의 의지력, 깨진 알과 신화적 상상력 등에는 그의 실험정신이 배어났다. 최근 작품에서는 단청도료를 광목천에 뿌리고 · 던지고 · 흐르게 함으로써 원초적인 행위의 흔적을 탐색했다.

전시는 오는 3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정해은 기자

## 봄 위한 서정시 봄 · 마실 · 길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의 2017 신춘음악회 '봄을 위한 서정시, 봄 · 마실 · 길' 가 30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봄의 생명력을 주제로 한 이날 음악회에는 봄에 어울리는 총 다섯 곡의 국악관현악이 연주된다.

첫 무대는 관현악단 40명이 펼치는 국악관현악 '봄을 그리다'가 장식한다.

봄이 오는 풍경을 상상하며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몸짓과 봄이 주는 따뜻함, 생동감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만든 곡이다. 김백천이 작곡한 곡으로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연주된다.

이어지는 공후를 위한 국악관현악 '견훤'은 백제 땅에서 배출한 영웅 견훤의 일생을 담았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화려했던 시기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하여 백제의 악기 '공후'와 협연하는 곡으로 강성오가 작 · 편곡했다. 공후 연주

도립국악원 신춘음악회

내일 소리문화전당서

계절에 맞는 5곡 연주

수석인 조보연이 맡아 무대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국악관현악 시대를 노닐다 '공후의 이별' · '연인부두'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간직한 시대의 소리꾼과 춤꾼이 함께 하는 무대다. '불후의 명곡'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진 박애리와 팝핀 현준과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온고을로 떠나는 '봄 · 마실 · 길'은 축제의 도시 전라북도의 풍광과 삶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멋스러움을 다(多) 악장의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대미는 한 여류의 소나기를 설장구의 화려한 연주로 표현한 설장구협주곡 '소나기'가 장식한다. 비온 뒤에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는 맑고 청아한 세상을, 2세대 사물놀이계의 선두주자인 사물광대와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31일 시인 황규관 북 콘서트 '삼례의 추억' 개최

완주 삼례책마을, 오후 7시부터... 누구든지 참여 가능

완주삼례책마을(관장 박대현)에서는 오는 31일 황규관 북 콘서트 '삼례의 추억'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북 콘서트는 황규관 시인의 삼례에서 성장했던 경험과 기억들을 회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낭송, 그리고 토크를 통해 삼례성에 주목하고자 기획됐다.

황규관 시인은 1968년 전주 출생으로 삼례중학교를 졸업하는 등 성장의 기억을 삼례와 함께 하고 있다.

특히 1993년 전태일 문학상에 시 '지리산에서' 등 10편이 당선돼 등단했고, 저자

으로는 '강을 버린 세계에서 살아가기', '정오가 온다', '태풍을 기다리는 시간', '패배는 나의 힘', '삼례배차장', '철산동 우체국', '항상 가슴 떨리는 처음입니다' 등이 있다.

북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삼례책마을에서 열리며, 시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삼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삼례책마을은 매월 정기적인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책 및 문화와 관련된 저변확대와 문화향유에 힘을 계획 중이다. /원주=이중복 기자

###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 예술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2017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 창작곡 '한옥마을에 놀부가 됐다'에 함께 할 젊은 예술가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평일상설공연이다.

공연은 오는 5월 25일부터 매주 목 · 금요일 저녁 8시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모집분야는 소리 · 연기 · 무용 3개 부문으로 주 · 조역 및 앙상블 8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모집 공고일 27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 거주 또는 타 지역 거주 시 전북 거점 최근 3년 이내 활동경력이 있는 자라면 전공 · 연령 ·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서류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마감당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한다.

오디션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4월 4일 오후 4시 전주시민홀터 3층 모듬공간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접수는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www.jcf.or.kr](http://www.jcf.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cf\\_run@maver.com](mailto:jcf_run@maver.com)), 또는 우편(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사무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